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영성 체험에 관한 연구 -기독교·가톨릭인 회복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Spirituality Experience of Recovering Drug Addicts

임해영*, 김학주**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Hae Young Lim(hae0629@hanmail.net)*, Hakju Kim(lionking@dongguk.edu)**

요약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영성 체험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이들의 영성 체험은 '신적 존재와의 관계 체험', '내재적 초월 경험'이란 2가지 본질 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적 존재와의 관계 체험'이란 본질 주제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 '매달리는 대상', '품어주는 존재'란 3가지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내재적 초월 경험'은 '실존의 직면', '심리적 재구성', '정신적 성숙', '혼자서 가야 하는 길' 이란 4가지 하위 주제로 개념화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은 종교 그 자체가 이들의 영성 체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영성 체험은 인간성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적 존재와의 관계 체험'과 '내재적 초월 경험'이란 영성 체험의 2가지 본질적 주제가 상호 순환적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계가 숙고해 볼 수 있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마약중독 | 회복기 마약중독자 | 영성 체험 | 현상학적 연구방법 |

Abstract

In order to find out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support recovering drug addicts in a holistic way,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research participants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piritual experience of recovering drug addic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ese spirituality experiences appeared as two thematic themes: 'experience of relationship with a divine being' and 'experience of inherent transcendence'. Three sub-themes of 'fear and scary existence', 'hanging object' and 'embracing existence' were derived from the essence theme of 'experience of relationship with a divine being' and 'immanent transcendental experience' was conceptualized into four sub-themes: 'facing existence', 'psychological reconstruction', 'mental maturity', and 'a way to go alone'. Based on this, spiritual experiences of recovery drug addicts showed that religion itself exerte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ir spiritual experience and their spiritual experience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covery of humanity. Also, 'intrinsic transcendental experience' suggested that two essential themes of spiritual experience were closely interrelated in a mutual cycl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s the major intervention plan for the recovery drug addicts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 can consider.

■ keyword : | Drug Addiction | Recovering Drug Addicts | Spiritual Experience | Phenomenological Study |

1. 서론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중독을 4대 중독으로 분류하고 있다[1]. 그리고 이러한 4대 중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1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 8명 중 1명꼴에 해당되는 수치이다[2].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현재 전체 마약류 사범은 총 9,25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통상 이 수치의 약 10배 정도를 드러나지 않은 암수적 인원인 마약류 중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마약중독자는 약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4]. 그리고 이 수치는 마약류범죄계수¹⁾ 20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부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이다[3]. 더욱이 단약을 시도한 마약중독자의 재발율은 약 40%에 육박한다고 보고되고 있다[5].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마약중독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이것 중 하나가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N.A(Narcotic Anonymous)²⁾를 들 수 있다. N.A는 하나님 혹은 초월적 존재가 마약중독으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12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6].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적, 영적인 측면이 이들의 회복을 돕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종교적 체험, 종교적 각성이 이들의 치료 혹은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은 사회복지 영성(Spirituality) 영역이다. 이 영역의 대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Canda and Furman(2003)은 “영성을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핵심

본성”으로 규정하고 있다[7]. 나아가 영성은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 둘 다를 포함하는데, 종교적인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내에서 한사람이 지닌 종교적이며 신앙적 태도, 이것의 정신적 특성으로 규정되고 있다[8]. 그리고 비종교적 영성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 영역까지 감지하는 지성적 능력,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에 내재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내재적 초월성으로 정의되고 있다[9].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영성의 의미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 본성이면서, 이것은 종교적, 비종교적 차원을 통해 드러나고, 외재적, 내재적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관련 선행연구들은 중독자들의 회복 요소로서, 위에서 언급한 영성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0-14]. 이러한 점에서 회복 과정에 있는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이 어떠한 의미로 드러나며, 이것이 이들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특히 마약중독자의 회복이 단순히 마약을 끊는 단약 차원을 넘어, 이들의 내적 성찰과 의식적 성숙을 통한 정신적 성장 경험에 관여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체험하는 영성은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는 물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동해 나가도록 돕는데 매우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연구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 과정에 있는 마약중독자들이 자신의 영성을 종교적, 비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복기 마약중독자를 지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데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비해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독자들의

1) 마약류범죄계수는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2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마약의 심각한 확산성으로 인해, 그 사회는 마약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고 있다.

2) N.A(Narcotic Anonymous)란 익명의 마약중독자로 변역될 수 있으며, 마약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단약과 회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조집단 모임을 의미한다[5].

회복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영성(spirituality)이다. 영성에 대한 개념은 그 자체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16].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은 영성의 중요한 속성으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에 관여하는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초월성, 통합적 에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7]. 그리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체로서 내적 성찰과 자기반성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15]. 그런데 최근 들어 중독자를 돕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중독자들이 회복과정에서 자신들의 중독을 쉽게 조절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A.A, N.A G..A³⁾ 12단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부터이다[6].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기 중독자들의 영성체험 관련 국내 연구들은 상술한 위 12단계 프로그램을 통한 영성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12][17][18].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승식·이솔지(2008)의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영성의 영향과 변화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이들의 본질 경험의 의미를 ‘지각과 반성’, ‘변화와 거듭남’, ‘타인을 향한 관심을 가진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천덕희(2010)의 연구에서는 A.A 원칙의 내재화를 통해 회복기 알코올중독자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이들 체험의 본질로 의미부여 하였다. ‘또한 최은미(2011)의 연구에서는 영성의 회복을 중독자들이 단약에 대한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신적 존재에게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 가는 과정으로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차실(2012)의 연구에서는 회복기 중독자들의 영성의 체험의 의미를 ‘자기중심성’과 ‘술’이라는 위상성이란 죄를 극복해 가는 경험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약물 관련 중독 치료에 있어 영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외연구들은 종교적, 영적인 지지가 대마초 중

독 등과 같은 약물중독자들의 치료성공에 기여한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접근이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실증적 증거들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22][23]. 이러한 측면에서 중독자 치료에 있어 종교성과 영성의 유용성은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구성요소를 갖춘 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치료 성공에 있어 신앙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22][24], 12단계 중 11단계에서 규정된 기도와 명상을 사용한 경우에 이들의 회복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3].

한편 최근에는 중독자들이 회복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성, 실존 체험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3][13][14]. 먼저 강준혁(2016)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들이 회복과정에서 체험하는 영성을 정신적 성숙과 종교적 회심차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자각’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실존 프로그램 구성, 지원시설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강선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과정에 있는 마약중독자들의 삶의 재건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실존 차원의 삶의 재구성을 핵심적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심수현(2017)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도박중독자의 경우 초월적 존재인 신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신성을 체험하고, 비종교인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에 대한 체험으로 영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초월적 관계를 경험하는 중독자들에 대한 영성적 개입의 돌봄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회복과정에서 영성의 역할과 중요성, 회복과 영성의 상호관련성, 회복의 실존적 의미들을 포착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 회복과 영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종교적 차원과 비종교적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성을 상호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를 가진 회복기 중독자들도 이들이 종교 내에서 체험하게 되는 영성과 종교 밖 실존의 차원에서 체험하게 되는 영성을 상

3) A. A.(Alcoholic Anonymus)란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로 번역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주친목’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G.A(Gambling Anonymus)란 익명의 도박중독자란 의미로 번역되며, 국내에서는 ‘단도박모임’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호 연결하여 탐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종교를 가진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그들의 회복과정 안에서 영성을 종교적, 비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회복기에 있는 마약중독자들이 체험한 영성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여 이들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크게 기술적(Descriptive) 현상학과 해석학적(Interpretive) 현상학으로 대별된다[29]. 그런데 Giorgi의 현상학은 대표적인 기술현상학 중 하나로서 후설현상학에서 제시한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의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 체험의 본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연구자의 선입견과 이론적 견해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현상의 본래 모습을 보려는 연구자의 태도 변경이란 환원의 방법을 통해[30], 어떠한 연구 현상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본질적 주제 즉 의미의 본질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31].

따라서 본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성이 가지는 살아 있는 체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파악하여 기술하는데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가 용이한 연구방법이라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 Giorgi가 제시한 연구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Giorgi가 제시한 자료수집, 현상학적 환원(판단중지와 태도변경), 자료 분석이라는 연구 절차에 입각하면서, Giorgi의 5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본질적 의미구조를 도출하였다[31][32].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중독 전문사회복지사 2인으로부터 3명의 참여자를 소개받았고,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1인이 2명을 소개하여 총 5명이 연구 참여자로 추천되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이 이 연구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 것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다른 연구를 수행하던 중 이들이 회복과정에서 영성 체험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을 드러낸다는 것을 포착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1월 이 연구의 본 면담이 시작될 당시 연구 참여자들의 단약기간은 최장 15년에서부터 최소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의 참여자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장기간에 걸친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료수집과 동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의미가 출현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인터뷰는 평균 총 5.8회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는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이 문제로 인한 법적 조치 및 강제 치료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을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재활센터, 회복자 자조모임인 N.A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료수집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복과정의 중독자를 돕는 치료공동체 실무자 2인, 관련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인과 개별적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N.A공동체 공개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구술한 심층 면담을 주 자료원으로 하면서, 상술한 관련 실무자 면담 자료와 N.A공동체 모임의 다른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이 구술 내용을 주 자료원 해석 시 보조적으로 참고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사용미약류	단약기간
1	남	54세	전문대졸	기독교	본드, 필로폰	15년
2	남	56세	고졸	가톨릭	필로폰	16년
3	남	46세	중졸	기독교	본드, 대마초, 필로폰	1년 6개월
4	남	50세	고졸	기독교	본드, 필로폰	1년 6개월
5	남	26	중졸	기독교	대마초, 필로폰	2년 2개월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의 경우, 이 연구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Giorgi가 제시한 5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 현상이나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선입견에 대해 괄호 치기하고, 연구현상이라는 사태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 변경을 통해 구술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전체적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29]. 연구자들은 첫 단계에서 약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연구자 자신이 가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선입견, 특정 이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구술자료 중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단위로 구분해 내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전사한 구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나의 의미와 구별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의미단위를 찾아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전사한 자료에 대해 연구자별로 의미단위를 찾아서 구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별로 각각 85개, 79개의 의미단위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앞 단계에서 구분한 의미단위를 연구자들이 일일이 상호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첩된 것들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총 22개의 의미단위를 확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본 연구 주제를 대변하는 핵심적 의미단위라는 점에서 ‘중심 의미’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확정된 의미단위를 이론적 범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 이 연구에서는 22개의 중심의미에 대해 7개의 이론적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것을 핵

심적 의미가 몇 개의 주제로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주제’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현상인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의 본질적 의미 구조를 분석해내는 단계로써, 연구자들은 22개의 ‘중심 의미’, 7개의 ‘드러난 주제’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의미의 본질을 2개의 ‘본질 주제’로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된 본질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드러난 주제별로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29][30]. 이후 ‘중심 의미’, ‘드러난 주제’, ‘본질 주제’와 그것에 대한 내용 기술에 대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동료 연구자 1인과 종교학 관련 연구자 1인에게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과 관련된 본질 구조와 그것에 입각한 현상의 기술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적 노력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에 대해 기초적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은 계량화된 양적 연구방법과 같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30].

오히려 연구 실천 현장에 진입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보호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집된 분석 자료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의 진실성,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2].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Merriam이 제시한 6가지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따랐다[30]. 첫째, 삼각검증법이다. 이것은 연구자, 자료원, 연구결과 확인에서 다원화 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명의 주 연구자와 1명의 보조연구원을 두었다. 자료원에 있어서는 심층 면담 자료이외에 관련 현장전문가 면담, NA공동체 모임 참석을 통해 확보한 기록 등 부가적 정보를 취합하였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 확인법으로 이 연구는 참여자 1, 2에게 연구 결과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장기간에 걸친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이다. 이 연구는 사전 면담에서 본 면담이 완료되기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친 시간

이 소요되었다. 넷째, 동료 검토법으로써 연구 결과 확인에 있어서 연구자들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종교학 관련 박사 각각 1인이 전체적인 연구 결과 및 전반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연구자의 편견과 선이해를 개방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들은 총 3회에 걸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연구 참여자에 대한 특정 지식과 관점에 기반 한 고정관념이 없는지를 열린 자세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섯째, 외부 감사의 방법으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승인된 계획서에 입각하여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한 모집, 동의, 계약, 녹취원칙 및 비밀보장 고지, 자발적 연구참여 중단, 연구 답례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자들이 제공한 심층면담 자료와 연구 수행의 전반적 내용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⁴⁾.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을 22개의 중심 의미⁵⁾ 7개의 드러난 주제, 2개의 본질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체험의 본질적 의미

본질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 의미
신적 존재와의 관계 경험	두렵고 무서운 존재	- 밑바닥까지 몰아가서 깨닫게 하는 존재 - 단죄하는 존재 -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
	매달리는 대상	- 절대자에게 대들기도 함 -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간절히 기도함 - 매달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
	품어주는 존재	- 비뚤어진 삶을 복원하는 장 -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용서해주는 존재 - 그의 뜻대로 쓰기 위해 인도하는 존재 - 민신창이가 된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

내재적 초월 경험	실존의 직면	- 존재성에 대해 질문 던지기 - 타자화 되었던 주변인들의 삶이 내 시선 속에 들어옴 - 자기 위선 인식하기
	심리적 재구성	- 삶의 균형 찾아가기 - 존재 이유 찾기 - 생각이 바뀌면서 할 일도 서서히 보임
	정신적 성숙	- 유혹을 끊어내는 결단 - 통찰력의 강화 - 약에 대한 갈망 객관화하기
	혼자서 가야하는 길	-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회복의 길 -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향해가는 먼 인생 항해 - 라이프 스타일 온전히 바꾸는 어려운 길

1) 신적 존재와의 관계 경험

연구 참여자들 모두는 오랜 세월 빠져나오지 못했던 마약중독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회복에 도움을 받고자 교회에 나가거나(참여자 1, 3, 4), 한 동안 나가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다(참여자 5).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중독자의 삶에서 회복자의 삶으로 변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기를 얻고자 종교를 찾거나 혹은 원래는 믿었지만 한동안 나가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된다. 이속에서 이들은 그들이 믿는 신적 존재와 다양한 관계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체험은 신적 존재가 지금까지 방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삶 전반을 모두 꿰어 보는 존재 이기에, 그 존재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거나 혹은 반복되는 재발 혹은 재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마약을 하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위해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매달리는 대상’으로 신적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그리고 교회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성직자와 교인들의 삶을 통해 ‘비뚤어진 내 삶이 복원되는 장’으로 교회공동체를 바라보거나, ‘그의 뜻대로 쓰기 위해 자신을 인도하는 존재’, ‘민신창이가 된 자신을 품어주는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연구자들은 이러한 체험을 ‘품어주는 존재’로 의미부여 하였다.

(1) 두렵고 무서운 존재

“악마에게 영혼이 빼앗겨서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는

4) IRB승인결과보고서(DURB-20161219-018)제출이후, 연구 참여자 5 사례를 추가함

(참여자 2)”란 구술처럼, 마약이 주는 강렬한 쾌락감은 참여자들을 중독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압도된 참여자들은 스스로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더 이상 빠져 나올 수 있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절망적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위기 경험들을 통해 새롭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의 계기로써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자신들을 재탄생하기 위해, 저 밑바닥까지 몰아가게 한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신적 존재를 자신들의 비윤리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벌하는 ‘단죄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나아가 이들은 반복되는 재발 경험 속에서, 또 다시 재발했다는 죄책감과 이로 인해 신적 존재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해하였다.

바닥으로 간다는 거...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 수 록 더 떨어질 공간이 많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는 거, 더 이상 밑으로 갈 때가 없는 거... 그게 바닥이에요. 바닥 자체가 딱 달라붙어서 더 내려가고 싶어도 더 내려갈 때가 없어요. 뭐 교도소 다 정신병원이다 다 가봤어도 나 ○○○이란 존재한테 요만큼의 자존심이 남아있었는데... 거건(노숙생활 하던 곳) 나 ○○○이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노숙자라 뭐라 그래요 그냥 수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노숙인들)을 대해보니까... 과거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인거야! 내가 그런 (노숙)체험이나 생활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생활도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느끼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몰고 가셨구나!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라고... 나를 거기까지 몰아가셨구나!(...이하 중략)(참여자 1)

어렸을 땐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회식구들 정말 저를 예뻐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마약하고 다니면서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 음... 이게 심해지니까...막 약마가 보이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정신 병원에 입원하고... 약하면서

증말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도 많이 해기도 하고...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엄마가 애를 이렇게 놔두면 진짜 안 되겠다, 이리다 죽겠다 싶었나 봐요. 그때 상황이 진짜 쓰레기 (최악의 상황)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느껴봐라! 너가 느껴야 정신 차린다’ 일부러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신 차리라고.(참여자 5).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적 존재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는 단죄자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마약중독 상태에서 사회가 허용하는 성적 규범을 넘어서는 무분별하고 음탕한 성행위들을 자행했던 자신들, 혹은 마약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유인해 몰래 약을 먹이는 등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종교적 시선 안에서 검열함으로써, 스스로를 신적 존재에게 벌 받아야 마땅한 단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녀 간에 관계, 선후배 애인 이런 남의 여자... 이런 거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데 마약을 하면 그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거를 그냥 쉽게 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약의 끝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자들 심리가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약을 하게 되면 다 여자로 보이고, 친구 애인도 그렇게 보이고...(중략)...약을 하면 (죄의식)그런 게 없어져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섭지. ‘주님은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니’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받을까. 나 같은 놈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참여자 4)

더욱이 이들은 수년 동안 나름대로 회복을 시도해 보지만, 어느 새인가 재발로 가있는 못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죄책감을 신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 투영 시키게 된다. 예컨대 신성한 존재인 하나님은 매번 회복에 실패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은 마약 재발이란 자기 파괴적 행동을 반복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신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다시 만나는 것을 한동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두려운 기분에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거나,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가는 것을 일정 기간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회복하다가 다시 잃어지고(재발하고)...그러다가 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마약을) 한 적이 있어요. 생활 뽕이라고 하는데... 약하게 조금씩 몰래몰래 했죠. 아프다는 핑계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몸이 고통스럽기 보다는 고통을 빌어서 마약을 하고 싶은 갈망이... 정말 마약은 마약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막 주는 거예요. 약을 하기 위해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무서워진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솔직히 약이 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가요. 근데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죄책감에... 진노의 하나님이 막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막 혼내실 것 같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말도 못해요(참여자 3)

(2) 매달리는 대상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는 그를 믿는 종교인들에게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33]. 그렇기에 참여자들은 그러한 절대적 존재인 신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면서,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신들을 파국으로 밀어 넣었던 마약중독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은 회복하고 싶은 자신의 열망이 속절없이 무너져 다시 재발로 빠지는 악순환 속에서도, 이 악순환을 끊게 해달라고 신에게 울부짖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마약을 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 그 욕망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거나, 참여자 자신의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반항도 많이 했죠. 영적 아버지께 도발도 많이 했는데... 나는 죽지도 못한다.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왜 나를 내버려 두느냐! 나를 정말 버린 거냐! 막 울면서 대들었어요. 제발

이 (마약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참여자 3)

저는 이렇게 있다가도 갈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십자가 앞에 달려가요. 십자가 보면서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좀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나면 마음이 좀 풀려요. 아! 저는 붙잡을 대상이 하나님 그분 한분 밖에 없어요. (참여자 5)

(3) 품어주는 존재

연구 참여자들은 생의 많은 시간을 마약을 통해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흥분과 쾌락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움직임에서의 방탕한 생활을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뒷골목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게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공동체 내의 성직자들, 동료 신자들의 따뜻하고 품위 있는 언행, 모범적인 삶, 삶의 지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읽고 이해하는 일들은 낯설기만 한 경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종교공동체 내에서의 경험을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는데 좋은 동력이 되어 주는 장치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교리, 종교공동체와의 관계 경험을 자신들의 굴곡지고 비뚤어진 삶을 복원시키는 하나의 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듣지도 못한 욕하고, 뒤로는 어떻게 안 좋은 방법으로 애를 써(이용해)먹을까! 이런 방향으로만 있었는데... 교회 방향으로 가면 항상 좋은 쪽 말을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하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좋은 품위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 묻혀서 있다면 나도 모르게 좋게 변할 거 같고.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꺾여지는 느낌이 나요.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제 댄에는 남자답게 살은 놈인데, '어우 비우 상해' 했는데... 처음 그 어색한 고비를 넘기니까... '그 분들 사는 것처럼 따라만 살아도 내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성경말씀 들어봐요. 구구절절 그 말씀의 의미가 큼... 뭐 구원이 따로 있나. 내가 하나님 곁에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지요(참여자 1).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당 기간 회복의 길을 걸어오면서 동료 중독자들을 돕는 일(참여자 1, 2, 3) 혹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보냈던 근거지를 떠나 타국과 같은

고국인 한국에서 홀로 회복자의 길을 가는 삶 자체가 (참여자 5) 절대자인 신적 존재가 그의 방식대로 연구 참여자들을 쓰기 위해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어느 날 수녀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라고'...(중략)...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나 같은 중독자 안 만드는 거! 나 같은 살인자 안 만드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거고, 내가 죽인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내가 7년 넘게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내가 체험한 거를 이야기하러 다니는 거...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참여자 2).

더욱이 이들은 마약중독에 빠져 비록 자신들이 사회적 질타를 받을만한 괴물 같은 행동을 많이 저질렀고, 그 행동을 용서 받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신적 존재에게서 찾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오랜 중독자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지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놓인 만신창이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신적 존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 신을 통해 오직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다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약에 대한 갈망,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못된 짓, 죽음 문턱까지 갔던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노숙자 생활... 그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보면 이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집니다. 구름이 걷힌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는 그 속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참여자 1).

2) 내재적 초월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내면에서 타자화 되었던 주변사람들과 다양한 삶의 사건,

스스로의 감정들과 선택들에 대해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성찰과 숙고를 통해 새롭게 의미부여 되고 재탄생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내재적 초월 경험'으로 본질 주제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초월 경험'은 가면적 자신이 아닌 민낯의 자신이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는 '실존의 직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건져 올린 '심리적 재구성' 그리고 좀 더 깊어진 사유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자신의 '정신적 성숙',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약중독이란 어두운 터널을 회복이란 빛을 향해 한발 한발 혼자서 나가야 하는 '혼자서 가야하는 길'이란 본질 주제들로 드러나고 있다.

(1) 실존의 직면

연구 참여자들은 회복의 길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중독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회복 초기에는 약을 끊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존재성에 대해 질문 던지기'란 중심 의미로 명명하였다.

저희 딸이 20살이 넘었습니다... 요새 딸하고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많다 아십니까! 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보인다 아십니까! 그 양반들이 내뱉은 맘 고생한 거... 인간 말종이 되어갔고 할짓, 못할 짓 다 했는데... 그 분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십니까... 근데 나는 내 새끼한테 아무것도 해주게 없어. 그래도 내는 여전히 우리 부모자식이고 내 딸 애비고... 아! 내가 산다는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 왜 내는 이렇게까지 밖에 못사는 것일까 생각이 많아집니다...(참여자 4)

한편 참여자들은 이성적 통제보다는 약물이 주는 강렬한 자극 속에서 성적 일탈, 범죄 행위 등 광기어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기에 휩싸인 삶은 가족과 친지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기중심적 삶

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았을 주변인들이 그들의 시선 속에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깊은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맨 정신 상태가 되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랑, 어동생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다치고 나서 뭐 병원비고, 뭐고... 어렸을때부터 들인 돈부터 해서, 저 사고치고 난 수습은 어머니가 다 하고 다니셨으니까...(중략)...어머니가 지금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74세면 그렇게 어르신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릎 아픈 것도 그렇고... 다 제탓 같으니까... 자식도리 못하고, 사람도리 못하고 고통만 안겨드린 것 같으니까...이제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참여자 3)

더욱이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현재 마약중독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마약을 하고 싶은 갈망은 언제, 어디서나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예컨대, 마약에 대한 유혹은 “종이컵 속에 담긴 커피 한잔에도 이미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먼저 와 있다”라는 참여자 1의 구술처럼, 부지불식간에 이들을 엄습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약물에 대한 갈망을 의식적으로 차단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갈망은 회복을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이들은 이러한 의식 밑바닥에서 회복의 가면을 쓰고 중독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을 자기 위선으로 의미 부여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약에 대한 갈망의 징후를 끊임없이 응시하고 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성찰적으로 포착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싶은 거니까 자살하겠죠. 나라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예요. 그니까 자살을 하는 거겠죠. 근데 자살을 시도한 후에 깨어나 보니깐 다시 약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면 자살도 합리화 하는 거예요. 말로는 중독자로 살바에는 차라리 죽자 하지만 그것도 위선이라는 거죠. 그건 내가 나를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태동안 마약으로 인해서 무책임하게 해냈던 모든 거에 대해서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살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다시 옛날대로 약하고... 회복이 안되니까 죽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마가 흘리는 눈물인거죠. 에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자! 합리화하는 거지...(참여자 1)

(2) 심리적 재구성

연구 참여자들에게 회복자로서의 생활세계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중독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강렬한 자극과 흥분으로 넘쳐나는 사회적 위반과 금기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다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규범과 규칙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통찰이 되어 이들의 의식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심리적 재구성’이란 주제로 명명하였다. 심리적 재구성이란 동일한 삶의 현상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달리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재구성된 의미는 ‘삶의 균형 찾아가기’, ‘생각이 바뀌면서 서서히 할 일도 보임’, ‘존재 이유 찾기’란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 와서 종합적인 검사를 했는데 뭐 뇌파, 뇌사진, 인성검사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거기 교도소(생활) 8년(마치고) 나와서 6,7년 긍정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성향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했는데, 오 결과는 심한 우울, 심한 불안, 공격성 85% 나왔더라고요. 집에서 한 삼일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거야.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가식적이었나,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바라고, 진정성이 결여됐나... 그러면서 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아! 내가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인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된거죠(참여자 2).

(3) 정신적 성숙

연구자들은 정신적 성숙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들이 회복 기간 동안 내적 성찰과 생각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지평들이 확장되고 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성숙은 마약이란 약물의 성격, 그것이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약물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내는 의식적·무의식적 합리화 기제 등을 간파해내는 ‘통찰력의 강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마약에 대한 갈망을 한발 물러서서 관조하는 ‘약에 대한 갈망 객관화하기’란 주제로 드러나게 된다.

저라고 갈망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갈망이 왔다가 가는 거를 저가 ‘왔다가 가는구나’,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하)고봐요. 과거에 갈망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갈망이 꼭 약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여자들 와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요. 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약간 허술하고... 뭐가 얘기만 하면 넘어올 것 같고... 뭐 이런 틈이 보여요. 그 틈이 보이면 벌써 약이란 자체가 딱 여기(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킴)에 와 있어요. 약이란 자체가 섹스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를 넘겨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 힘인데... 잠깐 그런 갈망이 오면 왔구나! 좀 있으면 가겠구나!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이 순간의 유혹을 넘기지 못해 약을 했구나! 생각을 해요. (회복)초창기에는 일부러 그 (갈망에 대한)생각을 안 하려고 벗어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놔두면 왔다가 자연스레 사라져요.(참여자 1)

(4) 혼자서 가야하는 길

연구 참여자들은 짧게는 10년 내외, 길게는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마약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회복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자신을 “나는 중독자 ○○입니다(참여자 1, 2, 3)”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개는 그만큼 회복의 길이 고되고 힘겨운 여정이기에, 자신의 한계성을 자각하면서 여전히 회복의 길 위에 서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일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일반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될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중독자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간극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회복의 길은 단지 약물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이 길

을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참여자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도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가야하는 길’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향해가는 먼 인생 항해’,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온전히 바꾸는 어려운 길’이란 의미들로 나타나고 있다.

TC(Therapy Community)자체가 규칙이에요. 규칙 자체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이거든요. 평생 책임감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내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노가다죠(힘든 일이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이불정리해서 차근차근 해놓고 더러운 곳은 내가 깨끗하게 치우고, 아침 제 시간에 밥을 먹고 돌아가며 설거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책임감 있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규칙이 조금씩 박히게 되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이 (생활)방식에 중독되는 건데... 솔직히 중독이 잘 안 돼요. 오래 걸려요. 허허 애들(회복중인 중독자들)한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꾸준히 일어나서 꾸준히 샤워하고, 규칙적으로 밥 먹고, 꾸준히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어찌보면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혼자 여행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봐야 해요(참여자 2).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회복 중에 있는 마약중독자들이 체험하는 영성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본질 주제는 외재적이고 절대적 대상으로서 ‘신적 존재와의 관계 경험’과 자신의 실존에 직면하면서 내적 통찰을 통해 의식 차원의 성장을 경험하는 ‘내재적 초월 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적 존재와의 관계 경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 ‘단죄하는 존재’, ‘쏟아주는 존재’로 신적 대상과 종교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종교를 신앙하지 않거나, 신앙했다라도 불성실 했던 마약중독자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종교적 회심 차원에서 영성을 체험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종교적 회심차원의 영성 체험은 도박자들의 영성 체험 내용 중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 신성 체험과 같은 종교적 회심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강준혁(2016)과 심수현(201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 결과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두렵고 무서운 대상으로서의 신성 체험과 한량없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절대 선으로써 신성을 동시에 체험한다는 점에서, 선과 악의 대극적 통합을 이룬 신성의 이미지를 강조한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34]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재적 초월 경험’은 ‘실존의 직면’, ‘심리적 재구성’, ‘정신적 성숙’, ‘단독자’라는 주제로 각각 나타났는데,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은 회복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마약중독자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은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실존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대한 성찰과 존재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그리고 좀 더 깊이진 통찰력과 생각의 성숙 속에서 중독자로서 그들의 뇌리에 박혀있던 의식들을 넘어서면서 회복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회복기 중독자들의 실존 체험을 정신적 성숙[13], 실존적 측면에서 심리적 재구성[3][35]을 언급하였다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이 의식의 확장을 통해 기존의 자의식을 넘어서는 내재적 초월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영성 체험이 ‘신적 대상과의 관계 경험’과 ‘내재적 초월’이란 본질 주제로 드러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성 체험의 핵심적 요소로 ‘관계성’과 ‘초월성’을 제시한 기존 연구결과[6][36]를 지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은 3가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은 종교적 가르침, 종교 의례, 종교공동체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신적인 절대자의 외재성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종교 그 자체가 이들의 영성 체험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신적 존재를 중독자로서 살아온 자신들의 온갖 치부

를 단죄할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 치부조차도 용서하고 온전히 품어줄 절대 선으로서 신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은 신적 존재에 대해 양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양가성을 띤 신적 존재에 대한 체험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스스로의 회복에 더욱 매달리도록 강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종교에 귀의하여 체험하게 되는 신앙 활동이 이들의 회복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계는 마약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종교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며, 종교가 보유한 사상적, 문화적,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은 인간성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은 중독 문제 속에서 사회가 금기시 하는 각종 위반과 폭력,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사회통념상 인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비정상적 행동과 삶의 태도를 일상화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영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들로 인해 고통 받았을 타자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인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통 받는 주변인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회개의 모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독자로 살면서 형성된 부정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영성 체험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서 적응적 인간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영성 체험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모범이 될 만한 인간다움의 가치를 복원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속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회복기 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존재성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삶의 방식과 질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종교계 및 사회복지계 전반의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은 '초월적 대상과의 관계 경험'과 '내재적 초월 경험'이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영성 체험은 신적 존재에게 회복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삶의 과오에 대한 반성, 취약하기만 한 자신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존재, 인간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있는 매달리는 대상으로서 신적 존재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적 존재와의 관계 경험은 자신의 실존성에 대한 질문던지기로 확장되고, 이러한 질문던지기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더 깊은 통찰로 구성해 내는 의식의 확장과 기존 자의식을 넘어서는 내재적 초월로 연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회복이란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그들 자신이 믿고 체험한 신적 존재를 뒷배경 삼아 홀로 걸어가야 하는 삶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적 회심차원의 초월적 대상과의 관계 경험과 내재적 초월 경험으로서 영성 체험은 상호 순환적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단약으로 진입한 회복기 중독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기대며 점검할 수 있는 의지처가 필요하며, 그 의지처가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신적 존재와 종교 공동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회심차원의 신적 존재와의 관계체험과 의식의 확장과정장이란 내재적 초월의 경험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개입 방안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좀 더 숙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종교를 가진 회복기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및 기타 종교를 가진 이들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불교 및 기타 종교를 가진 이들을 연구 참여자 포함시켰을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내용과는 다른 영성 체험의 의미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인원으로는 포화의 원칙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독교

및 가톨릭이외의 다른 종교가진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과 여성 참여자들의 영성체험을 좀 더 심도 있게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본 연구는 생명연구 제48집에 수록된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사례(연구 참여자 1, 2, 3, 4)와 새로운 사례(연구 참여자 5)를 추가하여 재분석한 연구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이해국, 이보혜, "4대 중독원인 및 중독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제200호, pp.30-42, 2013.
- [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가 중독예방 관리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3] 강선경, 문진영, 양동현, "마약중독에서 탈출한 회복자들의 자기 삶 재건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질적 사례연구접근-, " 재활복지, 제20권, pp.87-111, 2016.
- [4] 정재원, 마약중독자 재활시스템 및 신중마약 연구, 법무부, 2014.
-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관련 통계자료, 2015.
- [6] 최주혜, "중독과 영성," 신학과 실천, 제47권, pp.349-372, 2014.
- [7] E. Canda and L. Furman,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8] 신승환, "현대 철학에서 영성 이해의 가능성," 가톨릭철학, 제25호, pp.97-128, 2015.
- [9] 신승환, "현대 철학에서 영성 이해의 가능성," 가톨릭철학, 제25호, pp.97-128, 2015.
- [10] R. Moos and B. Moos, "Paths of entry into Alcoholics Anonymous: effects on participation, perceived benefit, and outcome," *Alcohol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Vol.29,

- No.10, pp.1858-1868, 2005.
- [11] 박애란, *알코올 의존자의 회복경험 : 삶의 거듭남*,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12] 천덕희, *A.A.를 통해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강준혁,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4] 심수현, *도박중독의 회복과정에서 영성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15] 최송식, 이솔지,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영성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pp.418-448, 2008.
- [16] 김세봉, 변상혜, “영성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소진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47-459, 2011.
- [17] 최은미, *N.A 자조 모임을 통한 마약의존자의 회복경험 탐색*,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8] 박차실, *A.A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회복 초기의 중독적 사고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19] 강준혁, 이혁구, “단도박자의 감각 회복 체험,”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4호, pp.121-150, 2016.
- [20] W. Miller and C. Thoresen. “Spirituality, religion,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Vol.58, No.1, pp.24-35, 2003.
- [21] W. Miller, “Researching the spiritual dimensions of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Addiction*,” Vol.93, No.7, pp.979-990, 1998.
- [22] P. Richards and A. Bergin,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religious diversity*, 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 [23] M. Swora, “The rhetoric of transformation in the healing of alcoholism: The twelve steps of alcoholics anonymou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Vol.7, No.3, pp.187-209, 2004.
- [24] P. Borman and D. Dixon, “Spirituality and the 12 steps of substance abuse recovery,” *J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26, No.3, pp.287-291, 1998.
- [25] S. Avant, L. Warburton, and A. Margolin, “Spiritual and religious support in recovery from addiction among HIV-positive injection drug users,” *Journal of Drugs*, Vol.33, No.1, pp.39-45, 2001.
- [26] L. Green, M. Fullilove, and R. Fullilove, “Stories of spiritual awakening: The nature of spirituality in recover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15, No.4, pp.325-331, 1998.
- [27] R. Fiorentine and M. Hillhouse, “Drug treatment and 12-step program participation: The additive effects of integrated recovery activitie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18, pp.65-74, 2000.
- [28] S. Carroll, “Spirituality and purpose in life in alcoholism recover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4, pp.297-301, 1993.
- [29]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현상학의 지평*, 한길사, 2014.
- [30]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3.
- [31] 김영천, 이현철,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2017.
- [32] 임혜영, 김학주, 윤현준,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제48권, pp.207-265, 2018.
- [33] A.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Pub., 2009.
- [34] 김성민, “현대 사회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신학과 실천*, 제48호, pp.171-145,

2016.

[35] 윤현준, *약물의존자의 회복체험 연구-인간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6] 김경미, “사회복지사의 영성(Spirituality)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경험 연구:임상사목교육(CPE)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537-549, 2016.

저 자 소 개

임 해 영(Hae Young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예명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영성, 질적연구방법

김 학 주(Hakju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워싱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 의료복지, 노인복지, 보건경제